

# 로어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의 쓰임에서 나타나는 동의적현상

## 장 미 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교수는 외국어에 대한 지식과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외국어교수에서는 학생들에게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표현, 문법규칙 같은것을 정확히 리해시키고 숙련시켜 그것을 다른 나라 책을 읽거나 회화를 하는데 능숙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현시기 외국어교육에서는 해당 외국어문장의 문법적구조와 함께 문장속에 존재하는 때 구성성분, 어휘들의 의미를 정확히 리해하고 문장전반의 진술적의미를 옳게 인식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 글에서는 로어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의 쓰임에서 나타나는 동의적현상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로어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들은 다른 결합형태(спит - не спит, в лесу - не в лесу)들처럼 조사 не에 의하여 구별되어 반의적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로어문장들에서 쓰이는 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들은 전통적인 리론으로써는 리해하기 힘든 의미적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예: Купались, ходили за грибами, а то (а не то) брали лодку и уплывали на соседний остров.(미역을 감고 버섯을 따러 다니다가 배를 잡아타고 이웃섬으로 떠나갔다.)

Отдай машинку, а то (а не то) маме пожалуюсь.(차를 돌려주지 않았다간 어머니에게 대주겠다.)

우의 실례문장들에서 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는 서로 교체하여도 같은 의미로 쓰이면서 문장전체의 진술적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시말하여 а то와 а не то는 의미적으로 반의어로 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이 접속사들이 진술의 의미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이 자유롭게 호상대신할수 있다. 이 접속사들이 응당 이루어져야 할 반의어적관계가 아니라 동의어적관계를 이룬다는것을 명백히 밝히려면 해당 접속사들의 의미소에 대하여 분석하는것이 필요하다.

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들은 그자체가 개별적인 단어로 기능을 수행할수 있으며 명백히 분리된 요소들인 а, то, не로 이루어져있다.

로어에는 그자체가 보조어인 단순요소들로 이루어진 접속사나 조사들이 매우 많다.

예: или = и + ли, чтобы = что + бы, дабы = да + бы, всеже = все + же, а также = а + так + же, даже = да + же

우의 실례들가운데서도 일부 단어들은 때 구성요소가 개별적단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요소들이라고 볼수 있다.

예: ибо = и + бо, либо = ли + бо

현대로어표준어에는 조사 бо가 이미 없으며 고서적들이나 일부 방언들, 우크라이나어에 고착되어있다.

이러한 분리된 단어들에 대하여서는 최초의 슬라브어와 다른 슬라브어들이 발전해오는 초기기에 벌써 연구되어 오늘날 그에 대한 리론적토대가 이루어져있다.

두개이상의 분리된 단어들이 하나의 최소단어로 합성될 때 두개의 서로 다른 의미적과정 즉 의미적분화와 융합이 따른다. 이러한 과정에 얻어진 단어들은 두개이상의 단어들의 단순한 결합체인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새로운 단어이다.

로어에서 조사 даже를 본다면 이 조사에는 да와 же가 분리되어있다.

구성요소인 да는 형태상 조사 да와 맞먹는다. 그런데 조사 да는 현대로어의 모든 문맥들에서 리용되며 다의성을 띤다.

례: Пойдешь с нами? – Да.

(우리와 함께 가겠니? – 예.)

Да будет свет!

(틀림없이 불이 올거야!)

Да что его спрашиваешь?

(도대체 그에게서 뭘 물어본단 말인가?)

지금에 와서 현대로어단어 да가 가지는 여러 어휘소들가운데서 даже의 구성요소인 да와 보다 근사한 의미를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분리요소인 да가 же와 결합될 때 어떤 의미였겠는가도 뚜렷치 않다. 그리고 да가 자기의 기본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새로운 조사 даже의 구성에 들어갔다고 가정할수도 있다. 이때 даже의 구성속에 들어있는 да와 же는 완전히 융합되어 조사 даже의 의미구조에서 어떤 의미적구성요소들이 да와 же로 되었는지 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로어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는 구조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합성접속사들이다. 때문에 그 구성요소들인 а와 то, не가 접속사의 의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데 대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들의 동의적현상은 구성상 이 합성접속사들을 이루고있는데 요소들이 접속사의 의미구조에 기여한다고 하면서도 그것들이 융합되어 접속사들의 총적의미가 생겼다고 보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있다.

언어단위들이 문장속에서 결합되는 규칙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할것을 요구하는 현대의미론의 요소적분석방법에 의하여 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를 분석할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는 или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는 아래의 문장들에서 접속사 или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례: Гуляли в лесу, а то(а не то, или) шли на озеро. = Гуляли в лесу или шли на озеро.(수림에서 산보를 하던가 호수로 갔다.)

Иногда засыпала сразу и спала всю ночь, а то(а не то) до рассвета читала романы. = Иногда засыпала сразу и спала всю ночь или (же) до рассвета читала романы.(때로 인차 잠들어 온밤 자기도 하고 새벽까지 소설을 읽기도 하였다.)

접속사 или는 자연스러우나 접속사 а то(а не то)가 잘 어울리지 않으며 지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다.

례: Он приедет в пятницу или в субботу.(Он приедет в пятницу, а то в субботу.)

Катя учится на славянском или на русском отделении.(Катя учится на славянском, а то на русском отделении.)

현대로어에서 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가 или와 의미론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관계로 하여 이 접속사들의 호상성은 절대적이지 못하다.

접속사 или는 우선 이야기되는 환경에 대하여 일정하게 알고있었다던가 모르고있다는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리용된다. 그러므로 접속사 или는 아래와 같은 류형의 문맥들에서는 규범적이다.

례: Он приедет в пятницу или в субботу.(그는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에 온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접속사 или는 знать와 같이 일정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고있음을 나타내는 술어,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있다는것을 나타

내는 술어들이 있는 문장들에서 가능하다.

례: Я знаю(мне известно), когда он придет - в пятницу или в субботу.

Я не знаю (мне неизвестно), когда он придет - в пятницу или в субботу.

접속사 или는 또한 환경바뀜을 서술하는데 리용된다. 그러나 《Гуляли в лесу или шли на озеро.》와 같은 류형의 문장들에서는 서술되는 환경들이 바뀐다는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큰 범위에서 간접적으로 지적한다.

례: Не скучно было отдыхать в деревне? - Нет, мы гуляли в лесу или шли на озеро, там всюду хорошо.(-농촌에서 휴식하기가 적적하지 않았소? - 아니요, 우리는 수림에서 산보를 하기도 하고 호수에도 갔지. 거기는 어디든 좋았어.)

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는 접속사 или에 비해 의미론적으로 단순하다. 로어문장 《Гуляли в лесу, а то(а не то) шли на озеро.》에서 이 접속사들은 바뀌여지는 환경은 나타낼수 있으나 말하는 사람들이 뭔가 알고있거나 알지 못한다는것과 같은것은 지적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는 그것을 이루는 단어중복요소 то의 의미로서 분석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단어 то는 대명사 тот의 중성, 주격, 대격형태이다. 자기의 기본 의미로서 이것은 지시대명사, 지시어이다.

례: Да он не в этот дом вошел, а вон в тот.(그런데 그는 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저 집으로 들어갔네.)

Вон взгляни, на то дерево.

(바로 저기를 살펴보게. 저 나무를 말이네.)

우의 실례들에서 단어 тот는 규정받는

명사와 일치하며 앞에서 언급된 대상을 가리킨다.

아래의 문장에서 단어중복요소인 то의 의미는 이미 지적된 환경의 풍부화된 내용을 담는다.

례: Каждый почти вечер видно зарево далеких пожаров: то враги жгут деревни.(거의 매일 저녁 멀리서 화재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적들이 농촌마을들을 불지르는것이다.)

то는 주문장의 지시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장론적특성도 가진다.

례: Что случилось, того уж не вернешь.

(빛어진 사태는 되돌려세우지 못한다.)

그러나 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에서 요소 то는 지금까지 본 지시대명사, 지시어의 요소인 то의 어느 한 어휘소와도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

례: Ходили за грибами, а не то брали лодку и плавали по озеру.

우의 문장에 대한 분리적방법으로 단어중복요소 то에 의한 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의 의미적측면을 보자.

례: Ходили за грибами(Р1), не шли за грибами (Р)- брали лодку и плавали по озеру(Q).

여기에서 Р는 앞에서 서술된 환경 Р1의 반복이다. 그러므로 Р는 단어중복요소 то로 교체할수 있다. 결과 단어사슬 не то가 얻어진다.

례: Ходили за грибами, не то брали лодку и плавали по озеру.

우의 실례에서는 환경 Р의 의미기능표시가 없어지고 문장속에 앞에 오는 환경을 가리키는 단어중복요소 то가 생긴다. 이때 문장은 문장속에 자연스럽게 어울려있는 접속사 а로 하여 а не то를 가지게 된다.

례: Ходили за грибами, а не то брали лодку и плавали по озеру.

접속사 а то(《Гуляли в лесу, а то шли на озеро.》에서)가 а не то와 다르다면 단어 중복요소인 то는 본문의 뒤에 오는 환경을 가리킨다. 즉 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는 방향만 다를뿐 동등한 분리적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접속사 а то와 а не то는 조건적의미를 가진다.

예: Держу вас только из уважения к вашему почтенному батюшке, а то(а не то) бы вы у меня давно полетели со службы.

(훌륭한 당신의 아버님을 존경하기에 당신을 놔두고있는거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한테서 오래전에 해고되었을거요.)

우의 문장은 《Держу вас только из уважения к вашему почтенному батюшке. Не уважал бы я его, вы бы у меня давно полетели со службы.》로 의미가 분석된다.

우의 문장에서는 《я уважаю вашего почтенного батюшку》라는 의미가 반복되는데 이 의미를 단어중복요소인 то로 바꾼 결과 а не то가 이루어진다.

이 문장은 또한 《Если бы я не уважал вашего батюшку, вы бы у меня давно полетели со службы.》로 의미분석이 되면서 《Я мог бы не уважать вашего почтенного батюшку.》라는 의미도 담을 수 있다. 이로 하여 접속사 а то의 단

어중복요소 то는 바로 본문의 앞에 오는 의미구조를 가리키며 접속사 а не то와 а то를 가지고있는 진술의 의미가 같다.

접속사 а не то와 달리 접속사 а то는 또 하나의 의미소인 원인의 의미를 가진다.

예: Я отложила ей шестьдесят, а то ей не на что было возвращаться.

(난 그에게 60Kor를 남겨두었네. 그렇지 않다간 그한테 돌아갈 러비가 없었을테니까.)

전형적인 회화어들에서 원인에 관한 물음은 단어 что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물음문 《Что он такой расстроенный?(그는 왜 이렇게 불쾌해있는가요?)》, 《Что ты так торопишься?(너는 왜 그렇게 서두르니?)》에서 원인물음이 단어 что에 의해 표시될 때 진술에서는 자연히 단어 то에 의해 원인의 의미가 갈라진다. 이 어휘소의 а то에서 요소 то는 뒤에 오는 내용을 가리킨다. 이 경우에는 접속사 а не то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러한 진술의 의미구조에 부정적의미를 띤 요소 то가 가리킬수 있는 의미구성요소가 전혀 내포되어있지 않기때문이다.

우리는 로어어휘들의 의미론적특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이 로어문장을 이루고있는 매 어휘들의 뜻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고 실천적으로 쓸모있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